

---

# 부 록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81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99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제24차(2023.12.28.)

### ◇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I.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
- ◆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개 시장운영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도 강화
-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 대출제도는 금융안정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 ◆ 디지털화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

#### 1.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
- 물가상승률이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 성장세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

-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아울러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

####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결정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도 강화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연 8회)\*

\* 2024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D+7일경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동 회의에 보고되었던 핵심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

# '통화정책/통화정책방향' 섹션 내에 '주요 금융·경제 이슈' 항목을 신설

— 이와 함께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4회)로 변경

○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경제전망,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노력도 지속

□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

○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

○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부문별·비대칭적 영향,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체계,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국내 파급영향, 물가동학 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저출산·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

### 3. 금융안정 도모

□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미시 데이터를 추가하여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트 모형을 개선하고 고빈도 데이터 및 시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

○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모색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

\* 금감원과의 MOU(2023년 11월) 등을 토대로 비은행금융부문에 대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

○ 정부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 2024년 상반기중 신청기관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

○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

\* 한국은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의장국(2023년 11월~2026년 10월)이자 ASEAN+3 공동의장국(리오스, 2024년)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

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대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의 파급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

○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여신제도(대출, 담보 등)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 4.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

○ 대출제도의 대상 금융기관 확대 필요성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

○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 비율 조정 등을 검토

\* 2023년 7월 31일부터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주금공MBS·특수은행채에 은행채·공공기관채·지방채·우량 회사채를 추가(일부는 8월 31일부터 적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국은행 및 이용기관)\*

\* RTGS 구축은 2028년, ISO 20022 도입은 2026년 각각 완료 예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기반을 점검·확충

○ 내년 4/4분기중 국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도 일부 포함

○ CBDC 도입 관련 법·제도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국회, 민간 전문가,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논의도 지속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빅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법」상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강화

## II.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겠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기초적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세계경제는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미국은 고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 되겠으며 유로지역은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겠으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내년 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전망

○ 세계교역은 IT경기 반등, 주요국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통화긴축의 영향 지속, 비용압력 완화 등으로 기초적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

### 2. 성장

◆ 국내경제는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비는 팬트업수요 소진,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회복 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반등,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취업자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24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각각 2%대 중반 및 2%대 초중반을 나타낼 전망

○ 국내 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외 수요부진 심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비용 압력의 파급영향 강화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

####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겠으나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와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국내외 경기·물가 흐름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글로벌 통화긴축 종료 가능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 5. 금융시스템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

□ 금융시스템은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각 업권별 자본비율(23.3/4분기말 기준, %)

일반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18.0(10.5)	8.2(2-5)	18.4(7-8)
저축은행	보험	증권
14.1(7-8)	223.6(100)	740.9(100)

- 1) 일반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 여신전문회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은 RBC비율, 증권사는 순자본비율 기준
- 2) ( )내는 규제 비율
- 3) 보험은 2023년 2/4분기말 기준

○ 다만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잠재

○ 또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낼 전망

<참고>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단기 연장) 실시(안)

### 1. 대출금액: 98,669,345,540원 이내\*

\* 2023.1.12일 실시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금액 1,369,769,345,540원에서 2023.12.22일 현재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기준

###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3.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o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o 중도 상환 가능

##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 7. 기타

- o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7.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2020.12.24일 및 2021.6.30일, 각각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o SPV에 대한 대출 금액, 금리 및 취급일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o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 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차(2024.1.11.)

###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

졌다. 다만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실업률이 일시적 요인에 영향받아 높아졌지만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파급영향, IT경기의 개선 정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 지속 등으로 12월중 3.2%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8%와 3.2%로 둔화되었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 한도 (억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400,000	2025.1.20일	대출취급기한 : 2024.12.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25.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24.12.31	
합계		5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24년 1월 11일(목)**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한도 유보분 포함) 한도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 2025년 9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은 9.3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0.3조원으로 하고, 총 한도는 30.0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21.0조원으로 한다.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b>제2조(대상기관)</b> ① 대상기관을 따로 정하여 공모(公募)로 증권을 매매대차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환매하는 경우에 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li> <li>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li> <li>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i> <li>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li> </ol> <p>②~④ (생 략)</p> <p><b>제4조(대상증권)</b> ①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생 략)</li> <li>5.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li> <li>6.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li> <li>7.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li> <li>8. 다음 각 목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다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철도공단</li> <li>나. 예금보험공사</li> <li>다. 중소기업저축은행진흥공단</li> <li>라. 한국가스공사</li> <li>마. 한국도로공사</li> <li>바. 한국수자원공사</li> <li>사. 한국전력공사</li> <li>아. 한국철도공사</li> <li>자. 한국토지주택공사</li> </ul> </li> <li>9. 다음 각 목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li> <li>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li> <li>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다만,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매매기간내에 채권에 부속된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은 제외한다.</li> </ul> </li> <li>②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채권의 매매는 환매조건부매매에 한정한다.</li> <li>③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채권으로서 증권매매 상대방 자신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li> </ol>	<p><b>제2조(대상기관)</b> ① 대상기관을 따로 정하여 공모(公募)로 증권을 매매대차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환매하는 경우에 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li> <li>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li> <li>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i> <li>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li> <li>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li> <li>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li> <li>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li> <li>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li> <li>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li> <li>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li> </ol> <p>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4조(대상증권)</b>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삭 제&gt;</li> <li>&lt;삭 제&gt;</li> <li>&lt;삭 제&gt;</li> <li>&lt;삭 제&gt;</li> </ul> </li> <li>&lt;삭 제&gt;</li> <li>&lt;삭 제&gt;</li> </ol>	<p>-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추가</p> <p>- 대상증권 제외</p> <p>- 대상증권 제외에 따른 조문 정비</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채권은 매매할 수 없다.

1. 매매상대방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손자회사·중손회사
2. 매매상대방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제6조(환매조건부 매매조건 및 증거금률) ① (생략)**

②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 체결일의 매매유기증권의 시장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이하 “증거금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매조건부매각의 경우 100%
2. 환매조건부매입의 경우 100% 이상으로 하되, 대상증권 및 잔존만기별로 총재가 정하는 율

**제6조의2(위험관리)** 총재는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낙찰결정) ①** 경쟁입찰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낙찰자 및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고매각금리 이하 또는 최저매입금리 이상에서 입찰자가 응찰한 금리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유리한 순서로 결정하되, 동일한 입찰금리로 결합된 입찰자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신 설>

**제6조(환매조건부 매매조건 및 증거금률)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 체결일의 매매유기증권의 시장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이하 “증거금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매조건부매각의 경우 100%
2. 환매조건부매입의 경우 100% 이상으로 하되, 대상기관, 대상증권 및 잔존만기별로 총재가 정하는 율

**제6조의2(위험관리)** 총재는 제4조제1항제4호의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낙찰결정) ①** 경쟁입찰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낙찰자 및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고매각금리 이하 또는 최저매입금리 이상에서 입찰자가 응찰한 금리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유리한 순서로 결정하되, 동일한 입찰금리로 결합된 입찰자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별 응찰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2024. 1. 25.>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기관별 증거금률 차등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대상증권 제외에 따른 조문 정비

- 증권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금액 제한 규정 신설

- 부칙 신설

- 시행일자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2. 평가·선정 방식 및 평가대상기간		2. 평가·선정 방식 및 평가대상기간		
	내용		내용	
평가 방식	<p>가. (생략)</p> <p>나. (평가그룹) 각 선정부문별로 신청기관을 다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다만 증권대차 대상기관은 그룹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p> <p>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p> <p>② 지방은행</p> <p>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lt;신설&gt; &lt;신설&gt;</p> <p>&lt;신설&gt;</p> <p>④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이하 “기타기관”이라 한다</p> <p>다. (현행·신규의 구분) 대상기관 선정 신청기한 만료일 현재 선정부문별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관이하 “현행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신규 신청기관을 구분하여 평가. 다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타기관에 한해 현행 대상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p> <p>라. (생략)</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평가그룹) 각 선정부문별로 신청기관을 다음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다만 증권대차 대상기관은 그룹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p> <p>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p> <p>② 지방은행</p> <p>③ 외국은행 국내지점</p> <p>④ 제2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업자</p> <p>⑤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상호저축은행은 제외(이하 “중앙회”라 한다)</p> <p>⑥ 제2조제1항제5호의 상호저축은행</p> <p>⑦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업자는 제외(이하 “기타기관”이라 한다)</p> <p>다. (현행·신규의 구분) 대상기관 선정 신청기한 만료일 현재 선정부문별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관(이하 “현행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신규 신청기관을 구분하여 평가. 다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기관에 한해 현행 대상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p> <p>라. (현행과 같음)</p>	<p>- 평가그룹 확대</p> <p>- 대상기관 선정 범위 확대에 따른 평가그룹 신설</p> <p>- 항번호 내림 및 기타기관 범위 조정(집합투자업자 제외)</p> <p>- 현행 대상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하는 그룹에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을 추가</p>	
선정 방식	<p>가.라. (생략)</p> <p>마. &lt;신설&gt;</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투자신탁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신탁 재산 규모가 총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신청한 기관은 대상기관 선정시 배제 가능</p>	<p>- 대상기관 선정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p>	
평가대상기간	(생략)	평가대상기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3. 평가항목 및 배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조정 및 일원화
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sup>1)</sup>			
평가항목	배점	내용	평가항목	배점	내용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 낙찰실적 <sup>1)</sup>	50(40)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 낙찰 금액 <sup>2)</sup> 및 횟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 낙찰실적 <sup>2)</sup>	35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 낙찰 금액 <sup>3)</sup> 및 횟수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낙찰실적 <sup>1)</sup>	10(15)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경쟁입찰 낙찰 금액 및 횟수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낙찰실적 <sup>2)</sup>	15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경쟁입찰 낙찰 금액 및 횟수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경쟁입찰 낙찰실적 <sup>1)</sup>	10(10)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경쟁입찰 낙찰 금액 및 횟수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경쟁입찰 낙찰실적 <sup>2)</sup>	10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경쟁입찰 낙찰 금액 및 횟수	
통화안정증권 유통실적	10(10)	자기의 계산으로 유통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수·매도한 금액의 합계	통화안정증권 유통실적	10	자기의 계산으로 유통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수·매도한 금액의 합계	
통화안정증권 보유실적	10(10)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통화안정증권 규모(기간중 일평균잔액)	통화안정증권 보유실적	10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통화안정증권 규모(기간중 일평균잔액)	
정책후응도	10(15)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후응도	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주: 1) 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현행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에 위탁하여 낙찰받은 금액 2) 경쟁입찰 발행 낙찰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발행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 )내는 기타기관에 적용하는 배점			주:1) 1.2. 평가 방식 나(평가그룹)의 ①~③, ⑦에 해당하는 기관 2) 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현행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에 위탁하여 낙찰받은 금액 3) 경쟁입찰 발행 낙찰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발행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현행			개정(안)			비고
나.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① 금융기관			나.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① 금융기관			
평가항목	배점	내용	평가항목	배점	내용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낙찰실적	35(0)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입찰시 낙찰 금액 <sup>1)</sup> 및 횟수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낙찰실적	25(0)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입찰시 낙찰 금액 <sup>1)2)</sup> 및 횟수 <sup>1)2)</sup>	평가항목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 정의 명확화
통화안정계정 낙찰실적	30(0)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예치금 경쟁입찰 낙찰 금액 <sup>1)</sup> 및 횟수 <sup>2)</sup>	통화안정계정 낙찰실적	25(0)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예치금 경쟁입찰 낙찰 금액 <sup>1)2)</sup> 및 횟수 <sup>1)2)</sup>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실적	15(70)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 금액 <sup>3)</sup>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실적	15(60)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 금액 <sup>3)</sup>	
콜거래 실적	10(20)	자기자본 <sup>4)</sup> 대비 콜론(기간중 일평균잔액) 비중	콜거래 실적	15(20)	자기자본 <sup>4)</sup> 대비 콜론(기간중 일평균잔액) 비중	
정책호응도	10(1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호응도	20(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정책호응도	10(15)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호응도	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주: 1) 낙찰금액×(만기(일)/364) <단서 신설>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대상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3) 기관간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대차대조표(고유계정)의 자본총계 기준. 단, 대상기관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1일부터 대상기관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 5월 3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적용 5) ( )내는 신규 신청기관에 적용하는 배점			주: 1) 낙찰금액×(만기(일)/364). 다만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마감일 직전 지급준비금 조절을 위한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2) 대상기관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3) 기관간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대차대조표(고유계정)의 자본총계 기준. 단, 대상기관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1일부터 대상기관 선정일이 포함된 연도 5월 3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적용 5) ( )내는 신규 신청기관에 적용하는 배점			95 부록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평가 방식 신설
<신설> ② 집합투자업자(1.2. 평가 방식 내(평가그룹)의 ④)			평가항목 배점 내용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낙찰실적 30(0)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입찰시 낙찰 금액 <sup>1)2)</sup> 및 횟수 <sup>1)2)</sup>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실적 15(30)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 금액 <sup>3)</sup> 콜거래 실적 15(30) 콜론(기간중 일평균잔액) 금액 재무건전성 20(20) 1.1. 신청 자격요건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 정책호응도 20(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주: 1) 낙찰금액×(만기(일)/364). 다만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마감일 직전 지급준비금 조절을 위한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2) 대상기관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3) 기관간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 )내는 신규 신청기관에 적용하는 배점			주: 1) 낙찰금액×(만기(일)/364). 다만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마감일 직전 지급준비금 조절을 위한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2) 대상기관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거래의 낙찰 금액 및 횟수는 제외 3) 기관간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금액에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 )내는 신규 신청기관에 적용하는 배점			

현 행	개 정(안)			비 고
<p>&lt;신 설&gt;</p>	<p>③ 중앙회( I.2. 평가 방식 나(평가그룹)의 ⑤)</p>			<p>- 중앙 회 에 대한 평가 방식 신설</p>
	평가 항목	배 점	내 용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증권 보유 규모	20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증권 보유규모 <sup>1)</sup>	
	중앙회 자산 규모	20	중앙회의 총 자산규모 <sup>2)</sup>	
	회원사 예수금 규모	20	중앙회의 회원사의 예수금 규모 <sup>2)</sup>	
	재무건전성	20	I.1. 신청 자격요건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	
정책호응도	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 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p>주: 1) 매월 말잔의 평균 2) 선정일 기준 가장 최근의 연차보고서 기준</p>				
<p>&lt;신 설&gt;</p>	<p>④ 상호저축은행( I.2. 평가 방식 나(평가그룹)의 ⑥)</p>			<p>-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평가 방식 신설</p>
	평가 항목	배 점	내 용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증권 보유 규모	20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증권 보유규모 <sup>1)</sup>	
	총 수신규모	20	총 수신규모 <sup>2)</sup>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치금 규모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맡긴 예치금 규모 <sup>2)</sup>	
	재무건전성	20	I.1. 신청 자격요건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	
정책호응도	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 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p>주: 1) 매월 말잔의 평균 2) 선정일 기준 가장 최근의 연차보고서 기준</p>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② 기타기관			⑤ 기타기관(1.2. 평가 방식 나(평가그룹)의 ⑦)			- 평가그룹 변경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
평가항목	배 점	내 용	평가항목	배 점	내 용	
기관간 환매 조건부증권매매 거래실적	90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 금액1)	기관간 환매 조건부증권매매 거래실적	60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입·매도 금액1)	
<신 설>			재무건전성	20	I.1. 신청 자격요건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	
정책호응도	1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호응도	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주: (생 략)			주: (현행과 같음)			
다. 증권대차 대상기관			다. 증권대차 대상기관			
평가항목	배 점	내 용	평가항목	배 점	내 용	
한국은행 증권대차 낙찰 실적	40(0)	한국은행의 증권차입 경쟁입찰 낙찰 금액1) 및 횟수	한국은행 증권대차 낙찰 실적	30(0)	한국은행의 증권차입 경쟁입찰 낙찰 금액1) 및 횟수	- 평가항목 배점 조정
국고채 보유 규모	30(50)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국고채 규모(기간중 일 평균잔액)	국고채 보유 규모	30(40)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국고채 규모(기간중 일 평균잔액)	
유통시장에서의 증권대차 실적	20(40)	유통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국고채를 대어·차입한 금액2)	유통시장에서의 증권대차 실적	20(40)	유통시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국고채를 대어·차입한 금액2)	
정책호응도	10(1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호응도	20(20)	공개시장운영 관련 시장정보 제공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정책에 대한 협조도, 정책적 고려 등	
주: (생 략)			주: (현행과 같음)			

## 제3차(2024.2.8.)

## ◇ 「발권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b>제2조(화폐발행)</b> ① 한국은행총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폐를 발행한다. ② (생 략)	<신 설>	<b>제2조(화폐발행)</b> ① 한국은행총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폐를 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화폐발행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문구 수정  - 화폐발행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조항 마련
<b>제3조(화폐도안)</b> 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b>제3조(화폐도안)</b>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 항 삭제  - 제2조 제3항에서 도안 작성 등 화폐발행 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항 삭제
		<b>부 칙 &lt;2024. 2. 8&gt;</b>		
		이 규정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히 상황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sup>1)</sup>

### 2023년 11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지난 금통위 이후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 흐름을 보임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기조의 조기 종료 기대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하였음.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큰 폭 상승하였던 미 국제금리가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기대 약화,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발행 속도 조절 등으로 다시 낮아졌고, 미 달러화도 약세를 나타내었음.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다만 더딘 소비 회복세,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중 성장은 지난 8월 전망 수준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IT경기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소폭 상승하였음.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낮아졌음. 금년 및 내년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향후 전망경로에는 공급요인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공급충격 등으로 비용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목표수준으로의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10월중 큰 폭 상승하였던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고, 주가도 반등하였음.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한 데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오름폭과 거래량이 다소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비은행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나,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향후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경상수지 등 외환부문 관련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임.

1) 자세한 논의 내용은 해당기간(2023년 11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종합하자면,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글로벌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향후 공급측 물가 상방압력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물가 목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를 보면 지난 금통위 이후 미국의 10월 고용 및 물가지표 둔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요국 국제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축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당폭 축소된 가운데 국별로 차별화된 성장 흐름을 보였음. 미국은 그간 견조한 소비와 고용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누적된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중국의 경우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부진,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하방 요인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음.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성장세가 미약한 모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

나, 수출이 글로벌 교역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선 흐름을 지속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음. 내년 성장률도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고용은 낮은 실업률 및 높은 고용률 등으로 고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신규 취업자 증가가 주로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지속하였음.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경로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향후 전망경로가 소폭 상향조정되었음. 근원물가 상승률은 비용상승압력 누적에 따른 파급영향으로 둔화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경기 흐름,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축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둔화 속도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기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국내 국고채금리도 상당폭 하락하면서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었음.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에서 은행채 및 CP 금리의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PF-ABCP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등 고금리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임. 한편 고금리 여건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크로 레버리지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가계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기인하여 최근 정책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가계부채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 실거래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보다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부채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 업종 기업들의 동반 부실화에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이 순 유입으로 전환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른 미 달러화 지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며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물가, 가계부채 등 금리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살펴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8%로 지난번 전망경로를 다소 상회하고 있고 근원물가도 더디게 둔화되고 있음. 가계대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국내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또한 부동산 PF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해외 여건을 보면 미국, EU 등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국 경제는 금년 들어 견조한 고용과 초과저축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실업률 상승, 임금상승률 하락 등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소프트랜딩과 경기침체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유로 경제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침체 속에서 중국 정부의 부양조치로 일정 부분 성장세 회복이 전망되며 일본 경제는 국내 수요 부진으로 3분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 임금 인상 정도가 일본 경제의 소비와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하락하였고 시중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상생금융 관련 영향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커져서 정상적인 기준금리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와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 등에 따라 11월 초 이후 하향 안정화되면서 1,300원 전후에서 등락중으로 앞으로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국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계나 기업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은행 당기순이익의 90% 수준이 예대마진임을 감안할 때 은행의 수익구조를 바꾸는 은행 산업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출 증가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고 근원물가도 더딘 둔화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지난 회의시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국제 유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세계 경기상황 이외에도 OPEC+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와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상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국내외 경기동향,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안정 상황,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살펴 보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위기와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경기사이클에서 벗어나 점차 균형으로 회귀해 가는 모습임. 고금리의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분절화 등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의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대응에 힘입어 대다수 국가에서 성장 및 물가가 균형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하락할 것이나 균형으로의 수렴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IT 사이클 반등과 친환경 사이클 확산에 따른 수출회복에 힘입어 금년보다 내년 및 내후년에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 대만, 헝가리, 체코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

은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성장 흐름이 전망되고 있음. IT 경기회복과 함께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금년 1~9월중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한 점도 앞으로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민간소비는 부채상환부담과 고령화 등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수요 증가, 외국인 관광객 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하락속도는 8월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이 경기회복과 맞물리면서 가격전가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임. 최근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및 에너지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높아진 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맞물려 물가하락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주요국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기금리가 동반 하락하였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었음. 그러나 일부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대 중반을 상회하고 PF-ABCP의 순상환이 지속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시장 불안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 금융을 중심으로 6조원이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임.

이상과 같은 경제·금융상황을 요약하면 수출여건은 현저히 개선되어 갈 것이나 소비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물가는 예상보다 경직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민간부채 누적에 의한 금융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제 금융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그간 주요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 통화긴축 효과가 파급되면서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는 다소 부진하였음. 고용은 제조업의 경우 대다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음. 임금의 경우 2022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면서 실질임금이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실질임금 하락은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생각함.

국내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7월 2.3%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10월에는 3.8%까지 높아졌음. 근원물가 등 기초적 물가지표는 3%대 초반에서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세가 멈추어 3.3%내외에서 넉달째 머물러 있음.

한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임. 그러나 높아진 금리부담으로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 관련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이 있음.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국내물가가 증대된 공급측 상방압력의 영향 등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목표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임. 반면 국제유가가 지난 전망 이후 OPEC+ 감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환율도 최근 낮아지면서 공급측 상방압력의 지속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소비회복세도 미약하여 수요측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택시장도 최근 들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1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더디나 기초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재정건전재정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 물가경로의 추이를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를 상회하는 수준이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기초적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

화되고 있고,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의 움직임, 그 간 누증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크기 및 지속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여짐. 또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금융안정 리스크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외환시장 및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되, 물가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2024년 1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그간 이어진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고점 대비 상당폭 낮아졌음. 세계경제 성장세는 통화긴축 효과가 실물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이례적으로 부진하였던 글로벌 교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국내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는 여전히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2023년 3/4분기 역대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습임. 양호한 노동지표는 주로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려면 청년층 고용이 회복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4분기 3.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4/4분기에는 3.4%로 다소 반등하였음. 이는 기저효과 소멸, 유가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없다면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금년말에는 2% 초반에 이를 전망임. 다만 앞으로는 양호한 고용 상황, 인플레이션 지속성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금융부문은 소상공인,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향후 부동산 PF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최근 물가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수해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안착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음. 또한 고금리는 민간의 부채를 줄여 미래의 소

비 및 투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됨.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도 기대할 수 있음.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는 통화긴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은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기는 소비회복세가 약화된 모습이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둔화되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되고 있으나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국내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 여타 공업제품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음. 향후 국내 물가는 기초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외환시장은 12월 FOMC 이후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완화되었음. 국고채금리가 미 국채금리 급락의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고 단기시장금리도 상당

폭 하락하였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감소하였으나 주택관련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과거 장기 평균 연체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 최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음.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물가가 기초적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물가목표 수준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물가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안착 여부를 최우선 목표로 물가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경기·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미 연준의 정책기조가 예상보다 조기에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면서 미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상당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속도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보임. 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 둔화가 완만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경제성장률의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률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상황임. 중국의 경우 완화된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내수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부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통화정책 긴축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함. 향후 경제 성장률은 실물부문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도 금년 중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다만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그리고 수출은 그 특성상 경로에 대한 전망 오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해 커진 상황임.

물가의 경우 전망 경로와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아직 물가 목표 수준인 2%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금년 말 시점 전망 수준과의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임. 향후 관리물가 인상 속도 및 에너지, 농수산물 가격의 불확실성,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영향, 누적된 공급충격의 물가 파급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상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판단함.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기조 조기 전환 기대 강화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 전환하였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내 금융여건은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함. 아울러 특정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발표 이후 외환 및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금융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임. 향후 특정 부문의 금융 불안요인이 현실화되는 경우 금융 불안을 촉발시키는 부문에 대한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국내 외환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외화 자금 조달 여건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실물경제와 물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대로 충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서비스업 수요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으며, 수급 여건의 개선으로 당분간 하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고점 대비 상당폭 낮아졌으나 향후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수준으로의 안정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국제금리가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였음. 다만 금년 들어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면서 지표들이 부분적으로 되돌려지는 모습임.

국내경기는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금년중 성장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물가는 금년에도 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말에서 내년초 무렵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압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하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기조로의 진입을 속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남아있음.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충분히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경제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민감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잔존 가능성이 있는 가격조정 모멘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부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들을 아우르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음.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주택가격의 하락 전환 및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큰 폭 하락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기업의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동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다만 PF 대출 등과 관련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겠

음.

요약하면,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상황은 점차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경로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하며, 금융안정 상황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주요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성장과 고용 상황도 보다 균형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임.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의 강한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규모 일자리 손실 없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연착륙 경로를 유지하고 있음. 유로 지역에서는 비용 상승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회복세도 둔화되었으나 에너지,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음.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지정학적 분절화 등이 구조적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성장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도 금년과 내년도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는 2%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됨. 조사국 분석에 따르면,

이는 금년도 세계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이 상품과 IT수요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국제유가가 낮아지는 등 우호적 대외여건이 형성된 데 기인한 바가 큼.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의 민간기여도가 높아지고 정부지출과 건설투자 의존도가 낮아진 가운데 수출의 지역다변화가 진전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음.

다만 민간소비가 실질소득 부진과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령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과 투자 동력이 글로벌 분절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약화된 데다 노동시장에서 핵심연령층의 고용증가가 미약한 점 등은 여전히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으나 비은행권의 대출연체율 상승,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PF 관련 리스크 증가 등 잠재적 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음.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화 강세에 연동되어 1,30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음. 가계대출은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상과 같은 경제·금융상황을 요약하면 앞으로 경제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 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는 기초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초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수요와 민간부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024년 2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글로벌 경제는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회복을 이어가고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상품수요 부진과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재정 확대기조 지속, 직·간접투자자금 유입,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기 상방압력과 초과저축 소진, 산업정책 관련 투자 둔화, 고용시장의 빈일자리율 하락 등 경기 하방압력이 공존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를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이에 따라 상품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핵심 근원서비스물가와 주거 서비스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기초전환의 예상 시점도 금년 중반 이후로 늦춰졌음. 여타국의 경우 유럽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중국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차별화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회복흐름이 약화되고 건설투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음. 앞으로도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의미있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이같은 국내수요 약화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농산물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에도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의 2차 가격전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스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함.

외환시장에서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과 외국인 투자자금 증가에 힘입어 원화의 약세폭이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대비 소폭에 머물렀고 외환시장 유동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음. 금융시장에서는 미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심리가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PF 등을 둘러싼 잠재위험은 여전히 큰 상황임.

이상을 요약하면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배경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 앞으로의 물가전망을 감안하면 2/4분기 이후에는 실질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하면서 민간수요를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이 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또한 선부는 완화기대는 작년 4/4분기 이후 둔화된 주택가격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민간부채의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물가가 전망경로를 따라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긴축기조의 완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소비자 물가는 부진한 내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겠으나, 공급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이 없다면 추세적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의 불안정성, 높은 농산물 가격 등의 불확실성을 내포함으로써 목표치에 근접할수록 하향 흐름이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됨.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고, 이미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지표상의 물가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 데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강화된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분절화에 따라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로 소비 등 내수에 의존하여 지탱해 왔으며, 자국의 내수 규모에 따라 국가별 성장 차별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아직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금융여건 개선과 글로벌 투자·교역 재개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글로벌 긴축 완화 및 교역여건 개선 흐름에 각국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호응하느냐 여부와, 국제간 공조 능력, 고용의 회복력 정도에 따라 경제 성과의 지역별·국가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한편,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 흐름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건설투자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모습임. 다만,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교역 여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 부문이 부진한 내수를 상쇄함으로써 점차 완

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가 이어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되고 있으나, 워크아웃 등 정책 당국의 다각적 대응, 상당 규모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경제에 큰 부담 요인임.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서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됨. 하반기에 접어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한 만큼 적절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앞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취약성 노출 정도, 물가의 안정적 하향 흐름 여부와 가계대출 동향 등의 변수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글로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장기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국가별로는 다소 차별적인 모습임. 특히 미국의 경우 견실한 고용과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지연될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연평균 2.1%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비롯한 내수는 미약함. 작년 4/4분기 3.4%로 반등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수요압력 약화, 유가 하락 등으로 1월에는 2.8%로 하락했음. 그러나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생활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4%에 머무르고 있음.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음. 높은 금리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작년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임금총액 상승률을 상쇄하여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이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물가안정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금융 부문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음. 다만 부동산 부문 기업의 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 신규 착공 위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당기간 건설투자의 부진이 전망되어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는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임.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아울러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의 고금리 및 고물가 국면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교역은 회복세가 더딘 편이나 향후 세계경제의 개선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반등하고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느린 상황임. 다만 1월 중 소비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지표의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경우 수요부진에 기인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은 5%에 다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완화적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시점부터는 국가별 통화정책이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점차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일부 신흥국의 경우 각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 대내 경제 상황에 맞추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음.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수출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이에 따라 경제성장 추이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고 있으나 세부 요소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노동시장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증가한 실업률을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향후 경제 성장률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당초 전망에 비해 더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물가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물가에 대한 수요측 압력도 다소 약화되었다고 판단함. 이

에 따라 민간소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 전망경로도 당초 예상 경로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향후 누적된 공급충격의 물가 파급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물가상승률의 상방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임.

한편 지난 금통위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주요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음.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여건이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되었음. 다만 단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덕분에 부동산 PF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지속의 위험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함. 향후 취약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국내 외환시장은 양호한 글로벌 금융여건에 기인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음.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여타 통화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음.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되고 CDS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평가하는바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며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더디나, 향후 가계 실질소득 개선 등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수출은 글로벌 IT경기 회복세와 미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둔화흐름에서 벗어나 반도체 및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 흐름을,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으나 대체로 완화적이며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국고채 금리는 최근 들어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에 따라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단기시장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가 큰 폭 반등하였음. 기업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흐름이 지속되나 기업자금조달은 대체로 원활하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여전히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의 견조한 증가흐름은 이어지고 있음.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물가가 기초적으로 둔화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 대비 높은 수준이며,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상황임. 반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며, 금년도와 내년도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여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내외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환율 움직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하향 안정화를 확실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 상황 등으로 서비스 부문 등의 인플레이션율이 더디게 둔화되고 있어 목표치로의 수렴 시기도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조정되면서 가격변수가 등락하였음. 주요 선

진국 중앙은행들이 당분간 현재의 높은 정책금리 수준 유지를 시사한 가운데, 이후 발표된 경기 및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되었음. 이에 따라 시장 가격변수에 반영된 정책금리 전망은 상향조정되었고, 미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음.

국내경기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음. 금년중 성장은 전체적으로는 지난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수출과 민간 소비의 성장 차별화는 당초 예상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내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데다,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주춤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였음. 주가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음.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 주택관련대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신용증권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PF-ABCP 시장의 불안심리로 다소 진정되었음. 다만 일부 비우량 CP의 차환 애로 등은 지속되었음.

종합하면 경기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있긴 하나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